

## 알렌 <백학선전> 영역본 연구\*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 비평을 통해 본 알렌 고소설영역본의 의미-

이 상 현\*

1. 알렌 <백학선전> 영역본의 발견과 그 의미
2. ‘설화집’이란 유통의 맥락과 서구인 초기의 고소설 비평
3. ‘민족지’라는 번역의 지평과 쿠랑의 번역비평
4. 알렌 <백학선전> 영역본의 번역양상과 번역의 지평

### <국문초록>

‘견우직녀 설화’로 알려진 알렌(H. N. Allen)의 “Ching Yuh and Kyain Oo”는 <백학선전>을 영역한 작품이다. 어휘, 문장단위에서의 충실한 직역은 아니었지만, 이야기의 전개 그 자체는 충실한 번역양상을 보여준다. 그 수준은 모리스 쿠랑(M. Courant)이 검토한 경판 24장본 <백학선전>을 번역한 작품임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 미국 선교사들의 사전과 문법서가 없었던 1889년경의 한국어학적 수준과 쿠랑의 번역비평과 고소설 비평을 감안한다면, 알렌의 <백학선전> 영역본은 문학작품이 아닌 설화를 번역한다는 지평 설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풍속과 생활을 보여준다는 번역적 지향을 충족해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번역에 도움을 주신 이은령(부산대 인문학연구소 HK교수), 이진숙(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 선생님께 감사한다.

\*\*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HK연구교수

주제어 : 알렌, 견우와 직녀(Ching Yuh and Kyain Oo), 『한국의 설화Korean Tales』(1889) <백학선전>, 구전물, 번역지향, 번역지평, 문화의 번역, 민족지.

## 1. 알렌 <백학선전>영역본의 발견과 그 의미

본고의 목적은 알렌(Horace Newton Allen(安連) 1858-1932, 한국체류 1884-1905)의 *Korean Tales*(1889)에 수록된 ‘견우직녀 설화’로 알려진 작품이 <백학선전>영역본이란 사실을 학계에 알리는 데 있다.<sup>1)</sup> *Korean Tales*에 수록된 4편의 번역물은 일찍이 구자균에 의해 ‘한국고소설을 영역한 최초의 사례이자 효시’로 평가받은 바 있다. 더불어 조희웅은 *Korean Tales* 전반에 수록된 번역물을 검토하며 “근대 설화학상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 최초의 자료선집”이란 의의를 부여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서구어로 번역된 고소설의 효시(구자균)이면서도 설화(집)로서 유통된 작품(조희웅)이라는 *Korean Tales*의 중요한 특징은 모두 거론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학선전>자체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었고, 알렌이 ‘견우직녀 설화’ (“Ching Yuh and Kyain Oo - The Trials of Two Heavenly Lovers.”)로 본래의 제목을 변형함으로, 그의 <백학선전>영역본은 한국 ‘견우직녀 설화’를 번역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던 셈이다.<sup>2)</sup>

1) H. N. Allen, *Korean Tales-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New York & London : The Nickerbocker Press, 1889. 구자균, 「Korea Fact and Fancy의 書評」, 『亞細亞研究』 6-2, 고려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1963; 조희웅, 「韓國說話學史起稿—西歐語 資料(第 I・II 期)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2) 김광식(「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0)과 허석(「근대 한국 이주 일본인들의 한국문학 번역과 유교적 지(知)의 변용」, 최박광 편, 『동아시아의 문화표상』, 박이정, 2007)의 연구를 통해 <백학선전>에 대한 번역이 비단 서구인에게만 한정된 실천이 아니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또한 게일(J. S. Gale) 역시 <백학선전>영역본(미간행 고소설 번역본)이 있어,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울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 한국체류 1890~1891)은 알렌의 작품들을 모두 읽었으며 『한국서지』를 저술하는 데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바 있다.<sup>3)</sup> 여기서 쿠랑은 『한국의 설화Korean Tales』(1889)에 수록된 “Ching Yuh and Kyain Oo”의 저본이 <백학선전>이라고 밝히고 있다.<sup>4)</sup> 쿠랑의 이러한 진술은 단순히 새로운 고소설 영역본 한 편을 발견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쿠랑은 원본 고소설을 함께 읽을 수 있었던 서구인 독자였기에, 고소설에 대한 비평뿐만 아니라 원본 고소설과 번역본을 대비하는 번역비평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알렌의 <백학선전>영역본을 비롯한 알렌의 영역본 전반을 이러한 모리스 쿠랑의 고소설비평과 번역비평이란 지평 속에서 그 의미를 규명해보려고 한다.

---

서 <백학선전>이 널리 유통되던 작품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권순궁, 한재표, 이상현, 『『게일문서』 소재 <심청전>, <토생전>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 30, 2010 ; 이상현, 「문혀진 <심청전>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2011) 특히 김광식의 연구를 통하여 아르노스의 설화집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의 존재(H. G. Arnous, 송재용·추태화 역, 『조선의 설화와 전설』, 제이앤씨, 2007(Korea. Märchen und Legenden, Leipzig, Verlag von Wilhelm Friedrich, 1893)와 아르노스의 저술에 수록된 ‘견우직녀 설화’가 <백학선전>독일어역본이란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김광식과 아르노스 설화집의 번역자들은 아르노스의 번역본이 알렌 영역본에 대한 번역본이란 사실이 이미 조희웅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을 간과했다.

- 3) M. Courant, 李姬載 역, 『韓國書誌-修訂翻譯版』, 一潮閣, 1997, 284쪽(Bibliographie Coréénene, 3tomes, 1894-1896, 1901, Supplément, 1901) 이하 이희재의 번역문을 활용할 경우는 인용면만을 표기하도록 한다.
- 4) 기존논의 속에서 <토끼전>,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5종의 작품을 고소설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쿠랑은 『한국의 설화Korean Tales』에서 동물우화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을 모두 고소설의 번역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 <토끼전>(925) 제명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그가 목록만을 옮겨왔을 가능성을 지닌 고소설이며, 알렌 영역본에서 설화와 함께 포괄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하다면, 그가 <토끼전>을 고소설 번역본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는 알렌 영역본의 III장(The Rabbit and Other Legends Stories of Birds and Animals.(토끼와 다른 전설들. 조류와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그가 검토한 고소설과 대비할 필요는 없는 완전한 설화의 채록으로 인식했던 셈이다.

## 2. ‘설화집’이란 유통맥락과 서구인 초기의 고소설비평

① *Korean Tales*(1889)는 한국에서 채록한 설화작품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고소설이 “抄譯 혹은 童話化”된 형태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설화집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후대의 한국설화집과 설화연구에 끼친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없는 것이다. 또한 고소설과 설화의 미분화야말로 당시 설화집 출판의 보편적 형태였다.<sup>5)</sup>

1931년 서구인 한국학 논저를 집성한 인물이기도 한 원한경(H. H. Underwood)은 알렌을 회고하는 글에서, 『한국의 설화*Korean Tales*』를 대표적인 알렌의 저술로 지적하며 “매력적인 한국의 전설과 설화들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sup>6)</sup>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알렌의 저술을 구전설화로 규정하는 통념이 이 시기까지 여전히 지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sup>7)</sup> 알렌 역시

---

5) 조희웅(1986), 103-104쪽 참조. *Korean Tales*(1889)가 절판된 이후 출판사와 (서구인)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1904년에 재출간된 사정(“Publisher’s Note”, H. N. Allen, *Korea, fact and fancy : being a republication of two books entitled “Korean tales” and “A chronological index”*, Seoul :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아르노스(H. G. Arnous)에 의한 독일어로 번역본을 비롯하여 서구인이 편찬한 한국설화집에 재수록되며, 설화연구서에서 거듭 거론되는 모습을 감안해보면 그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6) H. H. Underwood, 서정민 편역, 「호레이스 N. 알렌」, 『한국과 언더우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39쪽(“Horace N. Allen”, *The Korea Mission Field* 29-3, 1933. 3)

7) 고소설을 설화로 규정하는 서구인의 시각은 비단 알렌의 저술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다. 원한경은 서구어로 된 한국학 자료를 집성하며, 알렌의 저술을 서구어로 된 한국학의 대표적 업적 50선 중 한 작품으로 엄선을 했다.(H. H. Underwood,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Seoul : Korea, 1931, pp. 184-185. 그는 설화, 전설, 이야기(Fairy Tales, Legends, and Stories)라는 표제항 아래 알렌의 저술, *Korea, fact and fancy*(1904)를 배치했다. “설화, 전설, 이야기”(Fairy Tales, Legends, and Stories)라는 표제어 아래, 알렌의 저술과 더불어 게일(J. S. Gale)의 『구운몽』, 『천여록』, 『청파극담』 번역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고소설과 설화가 구분되지 않는 정황은 19세기 말~20세기 초 대표적인 서구인 한국학 저널이었던 *Korean Repository*, *Korea Review* 등에 문학관계 논저가 한국설

『한국의 설화Korean Tales』의 「序文」(Preface)에서 그의 저술을 구성하는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구전물**(native lore)로 규정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한국인이 반미개인이라는 다소 강하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상을 고치는 곳에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삶, 풍속을 그들의 **구전물**(native lore)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특별히 엄선된 작품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번역한 것이다.(p.3)

알렌의 저술목적은 한국인이 반미개인이 아니란 사실을 변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알렌은 한국인들의 삶을 한국인들의 언어로 보여주는 설화를 직접 번역하여 재현해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즉, 이 저술에 수록된 고소설은 하나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한국사회 혹은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자료, 즉 민족지학적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으로 존재한다. 알렌의 고소설 영역본은 설화집이라는 유통맥락과 동시에 이렇듯 민족지라는 측면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알렌의 저술 I-II장에는 III장 이후 설화와 고소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 수도 서울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이 있다. I장 「서설 : 국가, 국민, 정부(Introductory : The Country, People, and Government)」에서는 한국의 지리와 기후, 인구, 국토, 광물, 자연경관, 정치제도, 세금·화폐·토지·호패제도, 의식주, 건축, 신분제도, 과거제도 및 한국인들의 성격과 언어·종교, 선교사들이 온 이후 신앙, 교육, 문물의 변모, 과거 그리고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소개했다. II장에서는 「묘사 : 수도

---

화에 대한 번역물이란 사실(조희웅의 같은 글, 103-104쪽 참조.) 헐버트(H. B. Hulbert)가 <조웅전>을 설화(folk-tales)로 거론하는 모습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Hulbert, H. B.,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2006, 385쪽.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mpany, 1906, p. 324) “한국인들은 그들의 민담(folk-tales) 속에 식적 운치를 넣는 것을 좋아한다.……그와 같은 유형의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조웅전The Story of Cho-ung』이다.”

안과 주변의 풍경>Description : Sights in and about the Capital]에는 서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상과 그 내력, 인구와 거주양상, 도로와 수로, 가옥, 白衣의 옷차림, 가정생활, 서울의 정경, 궁궐과 왕실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I-II장은 한국을 소개하는 민족지라고 볼 수 있다. 알렌이 「서문」에서 참조하길 부탁했던 그리피스(W.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한국』(1894)에서 역사(1부 고대중세사 / 3부 근현대사)와 구분된 2부 ‘정치와 사회’에 해당되는 주제들—8도의 지리와 풍물, 왕과 왕궁, 政派, 정부조직과 통치 방법, 봉건제도 · 농노 · 사회제도, 여성과 혼속, 아동생활, 가정 · 음식 · 복식, 상제와 장제, 옥외생활, 무속, 종교, 교육 등—을 알렌이 간략히 정리한 셈이기도 했다.<sup>8)</sup> 알렌이 편찬한 설화집 속에 배치된 번역물은 “민간에 구두전승되어온 설화”이며 “민족문화”로 규정된다. 그 속에는 설화를 국민국가 단위로 분할하는 근대의 시선이 놓여 있었으며, 중국적으로는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풍속, 한국의 국민·민족성을 도출하려는 민족지학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민족지와 설화집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설화로 인식되는 고소설 번역의 가장 큰 목적이자 지향점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피스 역시 전설과 민담(Legends and folk-lore)을 『은자의 나라, 한국』의 2부를 구성해주는 주제항목 가운데 하나로 배치했다. 그리피스는 동양 “민족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왕조의 역사”와 함께 동양인의 “정신적 · 심리적 역사”(a history of a mind, of psychology)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실제로 발생했었다고 믿고 있는 사실들을 기술하려는 노력”과 함께 동양인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395면, p.308) 여기서 설화는 후자의 영역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듯 그리피스가 언급한 “正史가 보여줄 수 없는 지점”에 관해서 헐버트(H. B. Hulbert)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설화(Folk-Tales) 속에는 “역

8) W. E. Griffis, 신복룡 역주,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 W. H. Allen & Co, 1882).

사의 정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인류학적 내용의 부품들이 존재하며, 역사상의 큰 사건을 조감하는 것만으로 얻을 수 없는 “가정과 가족과 일상생활”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9)</sup> 즉, 국가, 정부, 왕조란 단위 보다 작은 사회의 역사(미시사, 생활사)이며, 과거가 아닌 한국인이 현재 살아가는 삶과 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것이야말로 서구인 초기 ‘설화=고소설’ 번역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이다.

‘설화=고소설’이라는 인식은 『한국의 설화 *Korean Tales*』의 번역양상에도 투영되어 있다. 문학작품의 번역이라는 시각에서 원본의 언어표현을 직역을 통해 보존하는 것과는 다른 번역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희웅이 지적한 고소설의 “抄譯 혹은 童話化”라는 축역 및 변개양상은 알렌의 영역본에서 고소설의 언어표현을 서술자의 요약진술로 대체하는 축역이라는 지향과 긴밀히 관련된다. 알렌의 한국어 “實力은 결코 京板本을 내려 읽을 만한 것이 勿論 되지 못하여 京板本の ‘스토리’를 자세히 이야기하게 하고 이것을 土臺로 譯出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구자균의 추론도 중요한 지적이다.(구자균(1963), 232-233쪽) 비록 축역이지만 그 근간에는 경판본 고소설의 내용화소를 보존하고 있어 저본과의 길항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헌과 문헌이란 차원뿐만이 아니라, 한국인과 서구인 사이 구술적 상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당대의 한국어에 대한 어학적 측면들도 감안해 보아야 한다.

② 구자균이 잘 지적했듯이 알렌 영역본의 등장인물에 대한 표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로마자 표기와 다른 어색한 표기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구술적 상황의 개입—알렌의 한국어 받아쓰기의 모습—을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규범화된 표준어를 지닌 오늘날과 달리,

9) 헐버트, 앞의 책, 437쪽.(이 글은 본래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글이기도 하다. 그 출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H. B. Hulbert, “Korean Folk-Tales”,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I, 1902.

구어를 규범화된 표기로 기록한다는 점 즉, 공통된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규범화된 표기를 찾는다는 것이 적어도 미국 선교사에게는 불가능한 시기였다. 1890-1897년 사이 출판된 서구인들의 한영사전, 문법서와 같은 한국어학서 속에서 가장 큰 난제는 국문 정서법 그 자체였을 정도로, 국문은 문어로서의 위상과 축적된 관습을 지니지 못했다.<sup>10)</sup>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그의 문법서 서문에서 한국어에 대한 서구인의 두 가지 오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첫째, ‘말(Speech)은 諺文’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언어를 말과 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던 서구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보는 오해였다. 언더우드는 “언문”은 단지 표기체계일 뿐(a system of writing, the common Korean alphabet)라고 말했다. 즉, 고소설을 구성하는 국문(한글·언문)은 한국의 말을 세계를 포괄/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는 오해였다. 언더우드는 “길가를 지나가며 들을 수 있는 상인들, 중간계층, 머슴들”의 언어와 관리, 학자들의 언어는 다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후자는 한자로부터 파생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일 뿐 틀림없는 한국어라고 말했다.<sup>11)</sup> 이는 구어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문·한자어의 존재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고소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헐버트의 글에서 설화(국문)고소설은 구분되지 않고 함께 동일한 것으로 거론된다. 그는 당시 고소설 향유의 관습에는 ‘인쇄된 서적’이란 형태가 아니라 직업적인 이야기꾼의 ‘구전(口傳)’이라는 옛 풍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sup>12)</sup> 헐버트는 이러한 향유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원인이

10)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동방학지』15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235-246쪽을 참조.

11) H. G. Underwood, “Introductory remarks on the study of Korean”, 『韓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 Seishi Bunsha, Kelly & Walsh, 1890, pp. 4-5.(김민수, 하동호, 고영근 편,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 塔出版社, 1979).

12) 헐버트, 앞의 책, 371쪽(본래 이 글은 잡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던 글이다. H. B. Hulbert, “Korean Fiction”, *Korea Review* II., 1902)



“인간의 언어를 정확히 기술할 수 없는” 한국 “문자어의 제약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이 점이 종국적으로 한국에서 소설문학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즉, 구어와 문자어가 현격히 다른 측면으로 인해, 대화를 그대로 기록하게 한다는 점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하여 “주제를 특유의 말투로 전개하거나 성격묘사”를 서술함에 큰 장애가 있음을 말해주었다.(372쪽)

알렌의 영역본에서 대화가 서술자의 진술로 대체되는 양상은 이러한 헐버트의 진술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 헐버트가 언문일치의 한글문어의 부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구어를 기록할 도구이자 수단인 언문이 한문에 비해 위상이 낮고 문어로서 관습(기술)을 지니지 못한 측면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아스톤(W. G. Aston)은 한국의 경판본 고소설에 관하여 “띄어쓰기, 표제지, 인쇄 혹은 출판자의 이름, 발행 시기 발행처, 작가의 이름”이 부재한 사실, 인쇄의 오류, 철자법의 혼란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고소설의 정서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문표기에 대응되는 본래 한자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sup>13)</sup>

이러한 언어상황을 감안한다면, 알렌이 국문고소설의 언어를 모두 해독하며 직역(완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국어와 영어 사이 정해지고 관습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직역해야 할 한국의 고소설이란 형상과 다른 원본고소설의 형상을 제시해준다. 그것은 새로운 재창작의 원천으로서 고소설이 참조저본으로 기능하는 지점이며, 알렌의 고소설읽기 혹은 비평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쿠랑에게 알렌의 이러한 고소설 읽기와 번역이 허용되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쿠랑의 『한국서지』서설에 수록된 고소설비평은 당시 설화로 인식되며 유통되던 한국고소설에 대한 기대지평에 잘 부응한다. 그가 지적

---

13) W. G. Aston.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XVIII, 1890, pp. 104-105.

한 한국의 고소설의 가장 큰 단점은 몰개성적이며 천편일률적이란 측면에 있었다. 개성을 지니지 못한 등장인물, 단순한 줄거리, 서투른 결말구조를 지닌 것으로, 쿠랑은 서구인들의 ‘아동용 우화 중 가장 불품없는 것보다도’ 못한 작품들로 규정했다.(70쪽) 쿠랑의 진술 속에서 한국의 고소설 작품은 서구의 근대문예물에는 미달된 작품들이었다. 고소설은 결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고전이 아니라, 지식인이나 관료가 아닌 존재들, 한문으로 문자생활이 가능하지 못한 저급한 독자들의 향유물이며, 시정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시기의 대중적인 독서물이었다. 고소설에 대한 쿠랑의 기대지평은 결코 문학작품이란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 즉, 설화라는 알렌의 고소설 번역의 지평과 쿠랑의 고소설 비평은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다.

쿠랑의 번역비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쿠랑은 알렌의 영역본에 참조표시를 붙였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종우(洪鍾宇, 1854-1914), 로니(J.H.Rosny, 보엑스 (Boex)형제의 필명)의 불역본에 관해서는 ‘원본에 대한 충실한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했다. 쿠랑은 홍종우, 로니 <춘향전> 번역본(*Printemps parfumé*)의 특징을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안” 즉, “모방”이라고 여겼다. 더불어 <춘향전> 해설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p.432)<sup>14)</sup> 이러한 쿠랑의 번역

14) 쿠랑은 홍종우 <심청전> 불역본(「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枯木再花)」(*Le Bois sec fleuri*, 1895))을 역시도 번역이 아니라 ‘번안’이라고 평가했다.(789-790쪽 (1901)) 즉, 홍종우의 <심청전> 불역본에 대해서도 쿠랑의 관점은 동일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서지』에서 쿠랑이 <심청전>의 줄거리를 기술할 때 참조한 번역본은 알렌의 작품이었다(423-424쪽). 사실 홍종우의 번역본은 선행연구 속에서도 “<심청전>을 바탕으로 하여, <별주부전>, <구운몽>”과 “<유충렬전> 등과 같은 근담소설류를 섞어 만든 것”으로, <심청전>의 온당한 불역본으로 평가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비교검토는 생략하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번역양상과 텍스트는 부분역이지만 “홍종우, 김정란 역(1981), 「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 『한국학보』 7-2, 1981, 139-156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제는 김윤식 「<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에 대하여」, 『한국학보』 7-2, 일지사, 1981 132-138쪽)을 참조. 홍종우, 로니의 고소설 불역본이 소개되던 정황에 대한 설명은 Frédéric Boulesteix, 이향·김정연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풀빛, 2002, 137-145쪽을 참조.

비평을 명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쿠랑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로니의 <춘향전>비평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sup>15)</sup> 그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춘향전>은 허구가 아닌 사실로 전승되며, 이도령의 후손들은 서울에 존재하고 있다.
- ② <춘향전>은 ‘반정부의 비판’을 포함하고 있기에 작자가 미상이며, 이는 한국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한국소설의 작가들은 대체로 庶出들이다. 그들은 산중에 은둔하며 사회적 신분에 반대하는 신랄한 작품을 쓴다.
- ③ <춘향전>은 “농부와 학생들의 노래”, “이도령이 운봉의 관리에게 건네준 시”를 보면 사회비판서이다.
- ④ “관리의 아들과 서민의 가난한 딸의 결혼” 자체가 관습에 대항하는 것이다.
- ⑤ <춘향전>의 두 주인공은 “부모의 명에 의”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시키는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이 맺은 사랑의 맹세는 유럽의 어떠한 가치와 견줄 수 없는 선의와 고결함을 지닌 것이다.
- ⑥ 이 소설은 못된 관리일지라도 아무도 죽지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 ⑦ 간결하지만 소설 속 정황에서 한국풍속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으며, 자연을 소재로 한 묘사는 천진한 매력을 주며, 이도령의 서문은 사회고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로니의 서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변별점은 <춘향전>을 사회비판적이며 관습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 하나의 문예물(문학작품)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고소설을 설화로 재편하여 번역한 알렌

15) 홍종우·로니, 김경란 역, 「향기로운 봄」, 김윤식, 「춘향전의 프랑스어 번역」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에서 그 개략적인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의 영역본과 쿠랑의 고소설 비평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韓佛字典』의 서문에서 사전의 편찬자는 한국의 초서체는 항상 고유의 단순성을 잃지 않아서, 한국어 알파벳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유럽 문학 텍스트들만큼 쉽게 한국어 텍스트들을 자유로이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술은 전술했던 아스톤의 언급과는 상반된다.<sup>16)</sup> 이는 원본 고소설에 대한 가독성이 쿠랑과 알렌이 달랐던 사정을 암시해 준다.

### 3. ‘민족지’라는 번역의 지평과 쿠랑의 번역비평

㉠ 쿠랑은 개별 고소설 작품의 서지와 개관을 말하는 말미에, 그가 참조한 서구인들의 논저를 표시했다.<sup>17)</sup> 그 중 알렌의 저술을 참조했다는 표시를 명기한 작품은 5종이다. 알렌 저술의 목차에 따라. 선행연구의 논의들<sup>18)</sup> 그리고 쿠랑이 거론한 해당저본, 알렌 저술에 대한 아르노스 독일어번역본의 작품 편제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Par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불사전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 C. Levy Imprimeur-Libraire, 1880.

17) 한국의 고소설과 관련된 논저는 알렌의 저술을 비롯하여, J. Ross,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Paisley, 1879(존 로스, 홍경숙 역, 『존 로스의 한국사-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역사』, 살림, 2010); W. G. Aston,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XVIII, 1890.

18) 오윤선, 『한국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집문당, 2008;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66쪽; 사재구·전상욱, 「춘향전 이본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설성경 편,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4; 이상현, 「문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이문성, 「판소리계 소설의 해외영문번역 현황과 전망」, 『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아르노스 설화집에 대한 해제인 송재용·추태화의 글도 함께 정리하도록 한다.

Korean Tales(1889)		쿠랑이 지정한 Korean Tales 해당저본(1894)	아르노스 번역본 III장 「조선의 설화와 전설」(1889)의 편제양상
표제명	선행연구 속의 해제		
III. The Rabbit and Other Legends Stories of Birds and Animals.(토끼와 다 른 전설들 조류와 동 물들의 이야기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일반적인 식물·동물들에 대한 설마궤꼬리 전설공녀와 관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鳥類에 대한 俗信, 까치가 중을 쳐서</li> <li>• 제비(홍부놀부의 略述) 토끼전</li> <li>• 번역비평 : 고소설의 초역, 동화화</li> <li>- 변개부분 : 魚王이 낚시 줄에 걸렸다가 重病을 얻었다는 설정, 토끼의 간이 아니라 토끼의 눈이 필요한 설정(조희웅(1986)) 토끼의 눈을 얻으려고 한 용왕이 잘못을 뉘우침(송재용·추태화(2007))</li> </ul>	×	1. Der Has und die Schildkröte (토끼와 거북이 : 본래 수록되어 있던 일반적인 식물·동물들에 대한 설화에 관해서는 II장 「조선에 관한 기술」에서 별도로 번역했다.)
IV. The Enchanted Wine Jug Or, Why the Cat and Dog are Enemies?(요술에 걸 린 와인단지, 혹은 왜 고양이와 개는 적인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犬猫爭珠 설화(조희웅(1986), 한국의 전래동화와 서양의 전래동화를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추론됨(송재용·추태화(2007))</li> </ul>	×	3. Die verzauberte Winkanne oder wesweben Hunde und Katzen Feind sind(마법의 술병 혹은 개와 고양이가 원수가 된 이유)
V. Ching Yuh and Kyain Oo The Trials of Two Heavenly Lovers.(견우직녀, 두 천 상배필의 시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견우직녀 설화</li> <li>• 저본 : 불명(&lt;백학선전&gt;, &lt;구운몽&gt;, &lt;주봉전&gt; 등등의 소설들을 재구성(송재용·추태화(2007))</li> </ul>	<백학선전白鶴扇傳> (항목번호 807) 1책, 4절판, 24장	5. Ching Yang Ye, die treue Tänzerin(직녀와 견우(별들의 사랑))
VI. Hyung Bo and Nahl Bo Or The Swallow-King's Rewards.(홍부놀부, 혹 은 제비 왕의 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lt;홍부전&gt;의 번역</li> <li>• 저본 : 경본25장본 혹은 20장본(이문성(2011))</li> <li>• 번역비평 : 고소설의 초역, 동화화</li> <li>- 변개 : 놀부가 多妻無子한 것으로 설정, 놀부에게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쫓겨난 인물이 흥부의 아들로 설정(조희웅(1986), 놀부가 박을 탈 때마다 사람이 등장하며 금전적 문제로 파산한다는 설정(송재용·추태화(2007))</li> </ul>	<홍부전興甫傳> (항목번호 820) 1책, 4절판, 25장	2. Hyung Bo und Nahl Bo order des SchwalbenKönigs Lohn(홍부(Hyung Bo)와 놀부(Nahl Bo), 제비왕 의 보답)

Korean Tales(1889)		쿠랑이 지정한 Korean Tales 해당저본(1894)	아르노스 번역본 III장 「조선의 설화와 전설」(1889)의 편제양상
표제명	선행연구 속의 해제		
VII. Chun Yang, The Faithful Dancing-Girl Wife(춘향: 충실한 기생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lt;춘향전&gt;의 번역</li> <li>• 저본 : 경본30장본 이하 (전상옥(2004, 2006))</li> <li>• 번역비평 : “直譯도 아니며 意譯도 아닌 中庸을 얻은 훌륭한 名譯” - 개작된 부분이 존재(원본 이상으로 巧妙하게 描寫한 부분, 以前 府使들의 虐政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부분) 이도령의 부친이 춘향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삭제한 내용, 소경점쟁이가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내용. - 불충실한 번역의 예 : 守廳에 대한 설명, 房子를 “pan san(valer)”으로 번역한 부분.(구자균(1963))</li> </ul>	<춘향전春香傳> (항목번호 816) 1책, 4절판, 30장	4. Chun Yang Ye, die treue Tänzerin(節義의 기생 춘향이)
VIII. Sim Chung The Dutiful Daughter(심청, 효성스러운 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lt;심청전&gt;의 번역</li> <li>• 저본 : 경판24장본(한남본)으로 추정</li> <li>• 번역비평 : 축약이지만 확장·변개시킨 부분이 존재.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을 보여주기 위한 번역적 지향이 엿보임. - 변개 :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성과 한국의 풍속을 보여주기 위해 전반부를 확장.(이상현(2011))</li> </ul>	<심청전沈靑傳> (항목번호 809) 1책, 4절판, 16장	6. Sim Chung, die gute Tochter(효녀 심청)
IX. Hong Kil Tong Or, The Adventures of an Abused Boy(홍길동, 혹은 박해를 받은 소년의 모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lt;홍길동전&gt;의 번역</li> <li>• 저본 : 불명</li> <li>• 변개양상 : 홍판서가 길몽을 꾸어 본부인과 함궁하려 하자, 기생 첩 때문에 못한 점. 홍길동이 왕이되는 것이 아니라 섬을 다스리는 수령의 딸을 구출하여 벼슬을 제수받음. 홍판서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귀환하여 묘자리를 잡고, 정실과 친모를 섬으로 보시고 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남(송재용·주태화(2007))</li> </ul>	<홍길동전洪吉童傳> (항목번호 821) 1책, 정방8절판, 30장	7. Hong Kil Tong oder die Geschichte des Knaben, welcher sich zurückgesetzt glaubte(홍길동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소년의 이야기)

알렌 영역본에 대한 참조양상이 쿠랑과 아르노스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설화집이란 동일한 견지에서 아르노스는 알렌이 번역한 모든 작품을 수록했다.<sup>19)</sup> 반면 모리스 쿠랑은 알렌 저술에 수록된 5편의 작품들이 그가 서지를 검토한 고소설과 관련된다는 점만을 명시했다. 쿠랑의 『한국 서지』는 아르노스와 달리 한국인의 말의 세계가 아니라 “한국의 도서”를 소개하려는 저술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즉, 쿠랑의 저술에서 소개되는 고소설은 분명히 구전물이 아니라 서적 속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알렌 영역본을 비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쿠랑이 알렌 영역본의 변개양상을 그가 고찰한 원본 고소설의 훼손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구자균은 알렌 <춘향전> 영역본의 저본이 경판본계열이란 사실을 규명했다. 그리고 그 번역양상을 “直譯도 아니오, 意譯도 아닌 中庸을 얻은 훌륭한 名作”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구자균의 번역비평과 마찬가지로 쿠랑 역시 경판본계열 고소설의 내용화소, 그 줄거리 요약에 위배되지 않는 축약, 생략을 문제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자균과 쿠랑의 번역비평 사이에는 큰 변별점이 존재한다. 구자균이 “守廳”에 대한 불충실한 번역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그것이다. 쿠랑이 비판한 로니·홍종우의 <춘향전> 불역본 역시 신관 사포의 守廳요구를 결혼요구로 변개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sup>20)</sup> 쿠랑의 <춘향전>에 대한 줄거리 요약을 보면, 그가 소설 속 남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1)</sup>

19) 물론 동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작품들을 <토끼전>, <홍부전>, 犬猫爭珠 설화를 먼저 배치한 차이점은 존재한다.

20) 홍종우, 로니의 <춘향전> 불역본의 개작양상은 “전상육, 「프랑스판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의 개작양상과 후대적 변모」,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를 참조.

21) “그러는 동안 李사포는 다른 고을로 파견되어 가고 그의 후임으로 온 자는 춘향이 매우 예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자신의 노리개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억지로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선임자의 애첩이었다고 말하면서 사포에게 가는 것을 거절했다.” 쿠랑이 참조했으리라 판단되는 『한불증언』(1880)에는 “守廳”이라는 표제항이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알렌의 <춘향전>영역본은 불역본의 독특한 내용전개를 생성시킨 가장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관리의 아들과 가난한 서민의 결혼과 부모의 명과 매파의 중매라는 관습에 벗어난 사랑(④, ⑤)이란 로니의 해석을 이끈 “(1) 춘향의 신분이 평민의 딸 (2) 女裝화소 (3) 방자의 역할 증대 (4) 노파의 존재”라는 변개양상과 관련된다. 알렌은 춘향의 신분을 어디까지나 기생으로 재현했다. 나아가 알렌은 기생이 사대부와 결연하는 경우가 로니가 제시한 그러한 의미가 아닌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있을 법한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sup>22)</sup> 즉, 알렌의 변개는 한국사회 속 한국인의 생활상에 위배되는 양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② 쿠랑은 <홍부전興甫傳>의 서지사향과 줄거리를 제시한 후, 그 전반부인 홍부가 놀부를 찾아가 매를 맞는 장면까지를 번역했다. 이는 가장 미시적으로 쿠랑의 고소설 읽기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초두 부분을 알렌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홍부전(경판 25장본)	쿠랑의 번역	알렌의 번역
1. 놀부심식 무거호여 부모 칭견 분직전답을 홀노 츠지호고 홍부 갖튼 어진 동심을 구박호여 건넌 산 언덕 밋히 너써리고 나가며 조롱호고 드러가며 비양호니 엇지 아니 무지호리	1. 못된 심성을 타고난 형 놀부는 <u>그의 부친이 그들에게 나누어 준 유산을 혼자 가지려고 고심했다.</u> (첨가 : 서술자의 진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작❶) 그는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쫓겨난 아우는 산기슭에 살게 되었다. 이는 못된 자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1. 형은 매우 부자였지만 동생은 너무 가난했다. 유산을 분배할 때 형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을 부양해야 했지만 오히려 전 재산을 독식하였다.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동생은 비참한 가난의 나락에 허덕여야 했다.

22) H. N. Allen, 앞의 책, 117쪽에서, 알렌 기생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장차 훌륭하게 될 만한 사람을 정복하거나 벼슬하고 부유한 사람의 첩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자와 자유로이 어울릴 수 있는 여인들에 대해” 벼슬아치나 부유층이 굳이 도덕관념을 지니지 않다고 말했다.

23) 경판본 <홍부전> 25장본과 20장본이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字句 출입 이상의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쿠랑의 서지사향에 부합되는 <경판본 25장본>과 쿠랑의 번역, 알렌의 번역을 비교해보는 것은 동일한 텍스트이지만 서로 다른 번역지향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홍부전(경판 25장분)	쿠랑의 번역	알렌의 번역
<p>2. 놀부 심스를 불작시면 초상난 디 춤추기 불붓는 디 부치질하기 <b>희산흔 의 기답잡기(㉠)</b> 장의 가면 먹미 흥정하기 집의서 못쓸 노릇하기 우는 으히 불기치기 <b>갓난으히 쫑 먹이기(㉡)</b> 무죄흔 놈 썸치기 빗갑식 계집 썸치 늙은 녕갑 덜미집기 으히 빈 계집 빅치기 우물 밋티 쫑누기 <b>오려논의 물터놋기(㉢)</b> 잣친 밥의 돌퍼붓기 꺾는 곡식 삭 즈르기 논두렁의 구멍쫓기 호박의 말쑥밧기 곱장이 업허놋코 밧 썸치로 탕탕치기 심스가 모과나모의 으들이라</p>	<p>2. 지난날 놀부의 행동을 살펴보자면, 그는 누가 죽으면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불(화재)이 나면 불기를 둔우었다. 시장에 가면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취했으며, 그의 돈을 꾀 사람의 여인을 빼앗고, 청얼대는 아이를 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쓰레기를 주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발로 찼고, 이유없는 사람들의 따귀를 때렸다. 노인을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챘다. 곱사등이의 등을 발꿈치로 때렸고 눈에 대어 놓은 물을 빼려고 눈의 제방을 뚫었다. 밥을 하고 있는 술에는 모래를 뿌렸고, 곡식의 이삭을 뺏으며 아직 어린 호박에 뽕족한 방망이로 구멍을 뚫는가 하면 우물에 그의 오물을 갖다 버렸다. 놀부의 마음은 누런 모과만큼이나 울퉁불퉁했다. <b>(㉠-㉢ 생략 : 장황한 사실)</b></p>	<p>2. 생략</p>
<p>3. 이놈의 심술은 이러히되 집은 부지라 호의호식하는구나.</p>	<p>3. 그러나 그는 부자이므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으로 치장할 수 있었다.</p>	<p>3.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b>형인 놀보는</b> 마누라 이외에도 첩들이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다. 반면에 <b>홍보는</b> 단 한명의 아내와 서너 명의 자식들을 두었다. 놀보의 처첩들은 허구헌날 싸웠다. <b>홍보는</b> 아내에게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았다. <b>홍보</b> 부부는 그들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했다. <b>(첩가 및 변용)</b> 형은 따뜻하고 편안한 여러 채의 가옥이 있는 넓고 좋은 저택에서 살았다.</p>

홍부전(경판 25장본)	쿠랑의 번역	알렌의 번역
<p>4. 홍부는 집도 업시 집을 지으려고 집적목을 너려 가랴이면 만첨청산 드러가서 소부동 덕부동을 와드렁통탕 버혀다가 안방딴청 흥남몹치 너외분합 물넉의 살미살창 가로다지 입구주로 지은 거시 아니라 (㉠) 이놈은 집적목을 너려 하고 슈슈뵈 틈으로 드러가서 슈슈딴 혼 못을 뷔여다가 안방딴청 흥남몹치 두루 지퍼 말집을 꼭 짓고(㉡) 도라보니 슈슈딴 반 못시 그져 남았고나</p>	<p>4. 형에게 쫓겨난 홍부는 홀로 집을 지었다. 그는 수수밭에 가서 대를 잘라 짚단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이 짚단으로 그는 한 부아소 [인용자 : 곡물을 재는 프랑스의 단위로 1부아소는 약 13리터]를 지칭한다. 1만한 크기의 초가집을 세워 거처를 구성해 나갔다. 그러고도 그에게는 짚단의 반이 남았다.(㉠ 축약)</p>	<p>4. 그들은 삶의 낙을 위해 쓸 돈은 없었고 뜻밖의 행운으로 생필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행복했다. <u>홍보는 일거리를 얻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일했지만 비오는 날과 농한기에 그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었다. 아내는 쉬운 바느질을 했다. 그들은 함께 농부와 해상인에게 팔 짚신을 만들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짚신 장사가 잘 되었다.</u>(참가 및 변경)</p>
	<p>“Nol pou, l'aîné, doué de mauvais instincts, médita “de garder pour lui seul l'héritage que leur père “avait divisé entre eux: il rêvait à s'emparer de “tous les biens et chassa son frère qui se retira au “pied de la montagne: n'est ce pas là l'action d'un “méchant? Si on examine la conduite passée de “Nol pou, on le voit se réjouir et danser quand quel- “qu'un meurt; activer le feu, quand il éclate un “incendie; prendre les objets sans en payer la juste “valeur, quand il va au marché; enlever la femme “de celui qui lui doit de l'argent; si un enfant se “plaint, il le frappe, s'il demande à manger, il lui “donne des ordures; il donne des coups de pied dans “le ventre des femmes enceintes, soufflette les gens “sans motif; il pousse les vieillards et les prend par “le cou”; il frappe la bosse des bossus à coups de “talon; il ouvre les digues des rizières pour en faire “écouler l'eau; il jette du sable dans la marmite où “l'on fait cuire le riz; dans les champs, il arrache “les épis et pique avec un bâton pointu les citrouilles “encore jeunes; il dépose ses ordures dans les puits. “Le cœur de ce Nol pou est aussi âpre que le coing “jaune; mais cet homme est riche, il peut faire bonne “chère et se vêtir de beaux habits”.</p> <p>“Houng pou, chassé par son frère, se bâtit une “maison, il dut se contenter d'aller dans un champ “de sorgho et d'y couper des tiges dont il fit une “gerbe; avec ces tiges, il éleva une chaumière grande “comme un bûche et composant tout son apparte- “ment; encore lui resta-t-il la moitié de la gerbe. “Après avoir mis la dernière main à ce travail, “Houng pou et sa femme s'en furent coucher. Ils</p>	<p>One was very rich, the other very poor. For in dividing the in-heritance, the elder brother, instead of taking the father's place, and providing for the younger children, kept the whole property to himself, allowing his younger brother nothing at all, and reducing him to a condition of abject misery.</p> <p>Both men were married. Nahl Bo, the elder, had many concubines, in addition to his wife, but had no children; while Hyung Bo had but one wife and several children. The former's wives were continually quarrelling; the latter lived in contentment and peace with his wife, each endeavoring to help the other bear the heavy burdens circumstances had placed upon them. The elder brother lived in a fine, large compound, with warm, comfortable houses; the younger had built himself a hut of broom straw, the thatch of which was so</p>

홍부전(경판 25장본)	쿠랑의 번역	알렌의 번역
		poor that when it rained they were deluged inside, upon the earthen floor. The room was so small, too, that when Hyung Bo stretched out his legs in his sleep his feet were apt to be thrust through the wall. They had no kang and had to sleep upon the cold dirt floor, where insects were so abundant as to often succeed in driving the sleepers out of doors. They had no money for the comforts of life, and were glad when a stroke of good fortune enabled them to obtain the necessities. Hyung Bo worked whenever he could get work, but rainy days and dull seasons were a heavy strain upon them. The wife did plain sewing, and together they made straw sandals for the peas-ants and vendors. At fair time the sandal business was good.

상기 도표를 통해 문학작품, 설화라는 고소설을 전유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지향점이 번역에 투영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쿠랑은 원본과 문장 단위의 차원에서 대비가 가능한 수준에서 <홍부전>을 직역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사례였다. 원본에 대한 충실한 직역이란 관점에 의거할 경우 쿠랑의 번역수준은 알렌 영역본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두 사람의 현격한 차이는 도표 1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본 고소설의 “엇지 아니 무지허리”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놀부에 대한 인물평을 행한 부분이다. 쿠랑은 이 부분을 “이 어찌 못된 행동이라 하지 않겠는가.”라는 형식으로 서술자의 목소리를 보존했다.

이에 비해 알렌은 서술자를 소거시키며, 원본의 서술자가 인도하는 장면위주의 서술방식을 굳이 쫓아가지 않고 사건의 전개양상에 초점을 맞

취 축역을 했다. 알렌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이야기꾼)의 위치에 서게 되며, 원본에는 없는 부자 놀부와 가난한 흥부의 생활(3, 4)을 첨가하여 제시했다. 그럼에도 쿠랑은 알렌의 영역본이 보여주는 자신이 번역한 <흥부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원본 대한 오역 혹은 변안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문학작품이 아닌 설화라는 알렌의 번역지평과 관련된다. 어휘나 문장단위가 아니라 내용화소를 중심으로 한 알렌의 축약이란 방식으로 말미암아 원본 고소설, 쿠랑의 줄거리요약, 번역문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알렌이 생략한 ‘놀부의 행동으로 성격을 묘사한 장면’과 이어지는 ‘열거·과장을 통해 흥부의 가난을 묘사한 대목’은 내용 및 사건의 전개와 관련을 지니고 있지 않다. 즉, 쿠랑이 『한국서지』에서 제시한 고소설 5편에 대한 줄거리 요약과 알렌이 제공해주는 번역본의 요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경우(도표의 3, 4)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지점이다. 그 단초는 쿠랑의 <흥부전>에 대한 번역동기, “한국인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p.438)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사고와 삶, 습관이 잘 반영된 한국인의 구전물(native lore)들이 서구인들이 궁금해 하던 한국인의 생활(life)과 민족성(Korean characteristics)을 보여주는 첩경이 될 것이란 알렌의 저술목적과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19세기 한국에서 직접 체류를 경험한 두 사람의 접점이기도 했다.

쿠랑이 번역한 전체에 대한 알렌의 변개양상을 정리해 보면, 일부다처의 놀부, 놀부와 흥부의 결혼생활(4) 이외에도 아들이 놀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설정, 놀부 집의 정경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알렌의 변개 이유에는 실제로 그가 체험했던 한국인들의 삶과 생활이란 준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지적 저술로는 보여줄 수 없는 한국인들의 가정생활의 생생한 현장이었다. 즉, 알렌 영역본에서의 변형 및 첨가는 알렌이 생각한 당시 한국의 현실에 부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본에는

없지만 서구인들이 체험한 한국의 현실(모습)이라는 민족지라는 번역의 지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렌은 원본이 지닌 흥부의 가난함에 대한 과장된 형상화를 변개했다. 흥부의 아이를 30명이 아니라, “서너명의 아이” 정도로 바꾸고, 흥부 부부 내외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했다. 이는 지나친 추론일지 모르나, 아버지가 아닌 아들, 아내의 부탁을 듣고 남편이 쌀을 얻으러 가는 장면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렌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놀부에 대한 변개는 그 당시 한국 부자들의 형상에 근접한 것으로 알렌이 여겼던 것일 수도 있다. 알렌의 변용양상과 관련된 한국에 대한 민족지의 내용들의 존재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sup>24)</sup> 그렇다면 <백학선전>영역본을 중심으로, 설화와 민족지라는 알렌의 번역지평이 투영된 양상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 4. 알렌 <백학선전>영역본의 번역양상과 번역의 지평

① *Korean Tales*에서 <백학선전>영역본은 설화에서 고소설로 넘어가는 중간에 놓여 있어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고소설 영역본들과 달리, 원본의 제목을 「직녀와 견우 - 두 천상배필의 시련」(Ching Yuh and Kyain Oo-The Trials of Two Heavenly Lovers)으로 변경했다. 즉, 가장 큰 변개양상은 제목과 서두에 삽입된 ‘견우직녀 설화’라고

---

24) 알렌이 서문에서 참조하기를 부탁했던 그리피스(George Griffiths)의 저술 속 “일부다처제를 허락하지 않지만 **훑훑**이 허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328쪽), 여성들이 “폭군과 같은 남편과 무분별한 시어머니에게까지도 묵묵히 복종한다.”(330쪽), “기근이 심해 한 계절쯤 자녀들을 다른 집에 맡겼다가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애당초부터 불가능하게 되면, **棄兒**가 되는 수도 있다. 지나치게 아이를 원하는 부모는 드물다. / 아이들이 제일 먼저 유념하는 일은 아버지에 대한 효도이다. 아버지 에 대한 불복종은 즉시 그리고 가혹하게 응징을 받는다.”(338쪽)와 같은 진술들은 알렌의 변개양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지점이다.

할 수 있다. 알렌이 <백학선전>영역본 앞에 견우직녀란 설화를 배치하고 제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알렌의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Things Korea*(1904)를 보면, 알렌은 七月七夕이라는 한국의 명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견우직녀설화’를 이야기 한다. 더불어 주석으로 관련된 다른 이야기(<백학선전>)를 *Korean Tales*에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다.<sup>25)</sup> 즉, 알렌은 <백학선전>에 ‘견우직녀 설화’를 삽입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견우직녀 설화’를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백학선전>을 선택한 것이다. 즉, 정기적인 장마철이 제 때에 찾아오면 수확에 필요한 강우를 경축하는 날, 견우와 직녀를 위한 축제, 칠월칠석이라는 한국의 명절과 관련하여 <백학선전>을 영역한 셈이다.

이 점에서 <백학선전>영역본은 고소설이 설화에 맞춰 변개되는 양상을 *Korean Tales*에서 잘 드러내 주는 작품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견우직녀 설화’와 <백학선전>을 함께 엮기 위해 알렌은 원본을 변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백학선’이란 소재를 둘러싼 원본 텍스트에 대한 번역 부분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알렌 역시 잘 알고 있었다.<sup>26)</sup> 백학선이란 소재가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준 장면들—유백로가 백학선을 가지고 스승을 찾아가는 장면, 유백로가 백학선을 조은하에게 글귀를 적어 건네는 장면, 성년이 된 조은하가 백학선에 적힌 글귀를 보고 유백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장면, 백학선으로 인해 조은하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장면 등을 알렌은 잘 번역했다.

---

25) H. N. Allen, 신복룡 역주, 『조선 견문기』, 집문당, 1999, 136쪽. (*Things Korea—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150.)

26) < I -2 변용3> “...옥동지 **백학**을 타고 내려와...”(2쪽)에 관해 알렌은 “...a most beautiful boy came down to her, riding upon a wonderful fan made of white feathers.”(p.59)이라고 번역했다. 원본에 없는 ‘백학선’(부채)을 직접 등장시켰고 유백로 모친의 꿈 속에서 이 부채를 옥동자가 건네주는 장면을 첨가했다. 그는 이 소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구인 독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그 단서를 미리 유백로 모친의 태몽 속에서 제시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반부에 해당되는 장면들, ‘조은하가 백학선의 도움을 받아 가달을 물리치는 장면’(42쪽)과 ‘유백로가 백학선을 통해 그가 도움을 받은 인물이 조은하임을 알게 되는 장면’(44쪽)은 번역을 생략했다. 즉, 서사전개양상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장면임에도, 알렌이 번역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알렌이 주목한 것은 ‘백학선’이라는 소재 자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백학선전>에 수록된 조은하와 관련된 태몽장면을 확대시킨 부분을 보면, 견우직녀 설화에 연결하려고 한 그의 의도적인 변개양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Ⅱ-2 부인이 곤뇌하여 잠간 조을시 오운이 남방으로 이러니며 풍악소리 들니거늘 순시 귀경코져 하여 시창을 열고 바라본즉 여러 선녀 금덩을 웅위하여 순시 압히 이르러 직벽 앞 우리는 **상제 시네 러니 칠월칠석의 은하수 오작교를 그릇 노흔 죄로 인간의 너치시미 일월성신이 이리로 지시하여 이르러스니**(㉠) 부인은 어엿비 여기소서 이 **낭주의 비필은 남경사 뉴시오니 천정비우를 일치 말나** **호고 말을 맞치며(누락)** **낭지 방중으로 드러가거늘 부인이 감격하여 방중을 쇄소코져** **하다가 문득 썩다르니 침상일몽이라**(4쪽)

...she was gazing into the heavens, hoping to witness the meeting of Ching Yuh and Kyain Oo, feeling sad at thought of their fabled tribulations.(첨가㉠) While thus engaged she fell asleep, and while sleeping dreamed that the four winds were bearing to her a beautiful litter, five rich, soft clouds. In the chair reclined a beautiful little girl, far lovelier than any being she had ever dreamed of before, and the like of which is never seen in real life. The chair itself was made of gold and jade. As the procession drew nearer the dreamer exclaimed: “Who are you, my beautiful child?”

“Oh,” replied the child, “I am glad you think me beautiful, for then, may be, you will let me stay with you.”

“I think I should like to have you very much, but you haven’t yet

answered my question.”

“Well,” she said, “I was an attendant upon the Queen of Heaven, but I have been very bad, though I meant no wrong, I am banished to earth for a season ; won’t you let me live with you, please?”

“I shall be delighted, my child, for we have no children. But what did you do that the stars should banish you from their midst?”

“Well, I will tell you,” she answered. “You, when the annual union of *Ching Yuh and Kyain Oo* takes place, I hear them mourning because they can only see each other once a year, while mortal pairs have each other’s company constantly. They never consider that while mortals have but eighty years of life at most, their lives are without limit, and they, therefore, have each other to a greater extent than do the mortals, whom they selfishly envy. In a spirit of mischief I determined to teach this unhappy couple a lesson ; consequently, on the last seventh moon, seventh day, when the bridge was about completed and ready for the eager pair to cross heaven’s river to each other’s embrace, I drove the crows away, and ruined their bridge before they could reach each other.(첨가②) I did it for mischief, ’t is true, and did not count on the drought that would occur, but for my misconduct and the consequent suffering entailed on mortals(첨가③), I am banished, and I trust you will take and care for me, kind lady.”(pp.62-63)<sup>27)</sup>

---

27) 그녀[인용자 - 은하의 모친]는 견우 직녀 전설 속 시련을 생각함에 슬픔을 느끼며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녀는 이내 잠이 들었고, 사방의 바람이 다섯 개의 풍성하고 부드러운 구름과 함께 아름다운 가마를 전해주는 꿈을 꾸었다. 의자에는 꿈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의자는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가마가 꿈을 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너는 누구니? 나의 귀여운 아가,”라고 그녀는 물었다. /아이는 “아, 저를 예쁘게 생각해주셔서 기뻐요. 그래야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너를 머물게 하고 싶구나, 그렇지만 내 질문에 답해주지 않겠니?” /“예” 그녀는 “저는 하늘의 여왕님의 시녀였어요.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추방되었어요. 한 계절 동안 지상에 머물러야 해요. 부디 저를 머물게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아이가



알렌의 영역본의 일반적인 번역지향이 축역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원본을 대폭 확장시킨 모습이다. 태몽을 꾸게 되는 동기가 조은하의 모친이 은하수를 보며 견우와 직녀를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첨언(첨가 ①)했으며, “칠월칠석의 은하수 오작교를 그훗 노흔 죄”를 조은하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추가되었다. 즉, 견우와 직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 둘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점(첨가 ②),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을 맞게 되었다는 진술(첨가 ③)이 보인다. 이는 두 연인들이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에 비가 되는데, 해후가 실패할 경우 가뭄이 온다는 서두에 배치한 ‘견우직녀 설화’의 내용에 의거한 변용이다. 즉, 원본의 “칠월칠석의 은하수 오작교를 그훗 노흔 죄로 인간의 넉치시미 일월성신이 이리로 지시하여 이르러스니”(①)란 짧은 구절이 <백학선전>을 ‘견우직녀 설화’와 함께 편성한 이유였던 것이다.

만약 <백학선전>이란 고소설 작품에 알렌이 주목했다면, 알렌은 이러한 번역양상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부채란 소재를 고소설의 제목으로 배치한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백학선전>의 특성을 알렌은 소거시킨 셈이기 때문이다.<sup>28)</sup>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을 보여준다는 저술

---

없으니 나의 아가, 그렇다면 나도 기쁠 거야. 그렇지만 너가 무슨 일을 했기에 별들이 너를 무리에서 추방했니?” /“예, 말씀 드릴게요”,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직녀와 견우가 매년 만날 때 인간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데 자신들은 일 년에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길어야 80세 밖에 못살지만 그들의 삶은 끝이 없어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도 인간들을 질투하다니 그들은 이기적이지요. /장난기 어린 마음에 저는 이 불행한 연인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7석에 다리가 거의 완성되어 열정적인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려는 순간, 저는 까마귀들을 풀어놓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망가트렸어요. 장난기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참이에요. 가뭄이 발생하게 될 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인간들에게 준 고통 때문에 추방되었어요. 부인, 당신이 저를 받아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어요.”

28) 김진영, 「<백학선전>의 소재적 특성과 이합구조」, 『국어국문학』 120, 국어국문학회, 1997.

목적에 부응되는 것은 부채(소재)라기보다는 인물들이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홍길동전>에 알렌이 등장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사실 알렌의 저술은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동식물에 대한 생각들, 犬猫爭珠 설화 이외에는 고소설이 차지하는 분량이 더욱 많다. 다시 “특별히 엄선된 작품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번역”했던 알렌의 서문을 상기해보면, 알렌은 고소설이 단편적인 설화에 비해 한국인의 삶과 생활을 더 잘 보여준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백학선전>을 통해 알렌이 제시하고자 한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② 견우직녀 설화의 주인공들의 시련과 대비할 수 있는 모습은 <백학선전> 속 유백로, 조은하 두 남녀의 엇갈림이란 사실. 그리고 <백학선전>에 없는 알렌 영역본의 **장 구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저본에 대한 번역분량을 가늠하기 위해서 영역본의 ‘장’, 분량(쪽수) 이에 대응되는 <백학선전>의 내용, 분량(쪽수)을 함께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Prelude 견우직녀 설화 (pp.56-57)**

- I 장** 4쪽(pp. 58-61) “유백로의 출생과 성장”( <백학선전> 3쪽(1-3쪽))
- II 장** 5쪽(pp. 61-65) “조은하의 출생성장, 유백로와 조은하의 만남”( <백학선전> 3쪽(3-5쪽))
- III 장** 5쪽(pp. 65-69) “유백로의 청혼거절, 과거급제”( <백학선전> 3쪽(5-7쪽))
- IV 장** 4쪽(pp. 69-72) “조은하의 청혼거절”( <백학선전> 4쪽(7-11쪽))
- V 장** 1쪽(p. 73) “유백로의 고난”( <백학선전> 3쪽(11-13쪽))
- VI 장** 4쪽(pp. 73-76) “조은하의 고난”( <백학선전> 9쪽 (13-22쪽))
- VII 장** 5쪽(pp. 76-80) “유백로의 낙향, 자원출정과 패배”( <백학선전> 7쪽(23-28쪽))
- VIII 장** 9쪽(pp. 80-88) “조은하의 용력과 무술 습득”, “조은하의 출정과 승리, 유백로와 은하의 재회, 개선, 혼인” ( <백학선전> 20쪽

(28-47쪽))

(누락 - “유백로, 조은하 자녀들의 군담 및 후일담 ((〈백학선전〉>2쪽(47-48쪽))

쿠랑이 보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백학선전(白鶴扇傳)>(경판 24장본)과 저본대비를 해보면, 원본의 언어표현이 많이 누락되었고 상당한 변경의 모습이 보인다.<sup>29)</sup> 즉, 알렌의 영역본은 개별 어휘와 문장을 보존하는 충실한 직역이라는 번역양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원본 고소설은 세밀한 언어표현을 보존할 번역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알렌의 영역본은 사건전개를 위한 원본 <백학선전>의 내용전개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내용화소란 차원에서 원본 고소설은 일종의 참조저본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I 장 유백로의 출생과 성장	1. 大明 시절 南京 땅에 상서 유태종이 자손이 없어 벼슬을 하직하고 낙향함.	○ 누락 : 소설적 시공간, 구체적 관직명은 번역생략이하 지명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번역하지 않음으로 누락양상에서 제외함(공통누락1) 변용 : 자손이 없어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관리들과의 관직생활에 지쳐 낙향

29)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에 대한 저본이 경판본 계열이며, 알렌의 영역본이 당시 서울에서 유통되던 경판본 고소설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가설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이다.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백학선전>의 목판본은 20장본은 24장본을 모본으로 하여 축약한 텍스트이며, 글자의 탈락, 어휘의 변화, 어순의 도치 등이 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창현,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69-79쪽.)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백학선전> 24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대비해보도록 한다. (『백학선전白鶴扇傳』, 京城 : 白斗鏞, 192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2. 유태종이 부인 진씨에게 無子恨歎을 하고 유씨 부부가 祈子치성을 하고 부인 진씨가 天上에서 仙童이 품에 드는 꿈을 꿈.	○ 변용1 : 부인과의 대화를 유태종의 심리묘사로 서술자가 대신 축약서술(이하 대화를 서술자의 진술로 요약하는 방식으로 누락 및 변용양상에 제외(공통변용)) 첨가 : 유씨 부부가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진술, 변용2 : 조은하의 모친이 새로운 부인을 얻도록 권유한 대목이 유태종의 부인의 말로 도치, 변용3 : 유백로 모친의 태몽 속에서 원본처럼 백학이 아니라, 白鶴扇을 타고 오는 것으로 설정, 부인에게 ‘백학선’을 전해줌, 첨가2 : 유백로를 유씨 부부가 교육시키는 장면을 첨가
	3. 유백로의 모친 꿈 속에서 선녀가 下降하여 順產을 돕고 배필이 조은하 임을 알려줌. 유태종은 기뻐하여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아이의 이름 짓고, 일가 친척이 함께 기뻐함	× 누락: 유태종이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작명하는 장면 누락 및 변용: 유백로에 대한 두 번째 태몽을 I -4에 배치
	4. 10세가 된 유백로가 世傳之寶인 白鶴扇을 들고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남	○ 변용 및 첨가 : I -3에 해당되는 원본의 유백로에 대한 두 번째 태몽을 이곳에 배치, 첨가 : 유백로가 지닌 부채가 태몽 속에서 본 부채란 사실을 첨언.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Ⅱ 장 조은하의 출생 과 성장	1. 이부상서 조성노부부가 혈육이 없어 세월을 한탄하며 보냄	○ 첨가 : 유씨 부부와 동일한 상황이란 점을 알렌이 논평
	2. 상서[조성노]부부가 都官을 찾아 禱祝한 뒤 태몽과 배필을 알려주는 꿈을 꿈.	○ 변용 및 첨가 : 조성노 부인의 태몽을 견우직녀 설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폭 확장. 누락 : 배필을 알려주는 내용
	3. 선녀가 부인의 순산을 돕고, 상서는 딸의 이름을 은하라고 지음.	×
조은하와 유백로의 만남	4. 10세가 된 조은하가 외가를 다녀오다가 柚子를 따 가지고 길가에서 씹	○
	5. 유백로는 조은하의 花容月態를 보고 欽慕하여 유자를 청해 받음	○
	6. 유백로는 白鶴扇에 情表의 글을 써서 조은하에게 전하고 길을 떠남.	○
Ⅲ 장 유백로의 청혼거절 과 급제	1. 3년 동안 공부한 유백로는 문장이 뛰어나게 되어 집으로 돌아옴.	○
	2. 백학선을 찾는 부친에게 유백로가 路中에 잃어버렸다고 하자 부친이 탄식함.	○
	3. 병부상서가 유백로의 인물됨을 칭찬하고 사위 삼기를 청함.	○
	4. 유백로가 立身한 후 혼사를 정하겠다고 하자, 유상서[유태종]는 청혼을 거절	○
	5. 유백로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순무어사가 되자, 조은하를 찾기로 다짐하고, 부친은 기주 刺史가 됨.	○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IV장 조은하의 청혼거절	1. 15세된 조은하는 최국낭의 청혼에 음식을 끊고 죽기를 작정함.	○ 누락 : 최국낭의 성명누락(영역본 전반에 걸쳐 동일), 첨가 : 원본에는 없는 최국낭의 성품을 묘사한 부분이 존재)
	2. 부친이 白鶴扇의 사연을 듣고 파혼하자, 최국낭은 양심을 품음	○ 변용(첨가) : 조은하의 부친이 최국낭과 파혼으로 들이 닥칠 고난을 예상하여 걱정하는 대목이 존재함)
	3. 전홍노의 도움으로 최국낭의 陰害를 피해 조상서 일가는 유백로가 있는 남경으로 떠남.	○ 누락 : 전홍노의 이름누락, 영역본 전반에 걸쳐 동일
V장 유백로의 고난	1. 유백로는 조은하를 찾지 못하여 重病이 들고 하향현에 도착.	○ 누락 : 조은하의 일을 부모께 말 못하는 심정의 기술
	2. 유백로는 외숙인 현령 전홍노에게 조은하와의 일을 고백하고 조은하의 전후사정을 알게 됨.	○
	3. 외숙으로부터 조은하가 남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유백로도 남경으로 떠남.	○
VI장 조은하의 고난	1. 남복의 조은하는 귀주 지경에 이르러 부친을 잃고, 임시로 장사를 지냄.	○ 누락 : 춘낭 등 조은하의 시비 이름이 생략(이는 이하 동일) 변용·첨가 : 여로 길에 남복을 한 것이 아니라, 시비의 권유로 남복을 한 것으로 설정. 또한 알렌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란 점을 부연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b>Ⅵ장</b> 조은하의 고난		설명함.
	2. 조은하는 가달이 남경으로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어 본토로 돌아가려고 함.	○ 누락 : 가달이란 성명누락(이는 이하 동일) 누락 2 : 점쟁이에게 길흉을 묻는 장면을 누락시킴
	3. 백학선을 소지하고 있어 관가에 잡혀가고, 기주지사 유태종이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투옥시킴.	○ 변용 : 갑자기 관가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유태종과 만나 유태종이 조은하가 백학선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설정으로 바꿈. 위협에 가까운 유태종의 권고를 변모시킴.
	4. 옥중에서 실신한 조은하는 아황(娥皇), 여영(女英) 등의 고사 속 節婦들을 만나, 유백로의 근황과 그와의 상봉시기를 듣고 회생함.	○ 누락1 : 조은하가 오랜 세월 동안 옥에 있었다는 점을 생략, 누락2 : 아황(娥皇), 여영(女英) 등의 인명을 누락시키고, 瀟湘斑竹 고사의 내용만을 제시
	5. 유태종이 백학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은하를 放送함. 조은하가 유생을 찾으러 청주로 향할 때, 청주에서 오는 사람에게 유백로가 경성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바꿈.	○ 변용 : 獄卒에게 조은하 일행이 여로를 말해줌. 방송되어 떠나는 장면에서 마무리함. 청주에서 오는 사람에게 유백로의 소식을 듣는 장면을 Ⅷ-1에 배치
<b>Ⅶ장</b> 유백로의 자원출정과 패배	1. 유백로가 병세가 더욱 깊어져 사직상소를 올리자, 황제는 유백로를 대사도로 부친 유태종을 예부상서로 임명. 유백로가 황제를 직접 보고	○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b>VII장</b> 유백로의 자원출정과 패배	윤허를 받아 조정을 물러나 집으로 돌아옴.	
	2. 진흥노에게서 과거 하향현의 일을 들은 유상서 [유태종]는 기주 지사 때의 일을 탄식하고, 유백로를 꾸짖음. 유백로는 조은하를 찾기로 마음을 정함.	○ 변용 1 : 유태종이 유백로를 의아해하고, 결혼을 재촉하는 모습에 진흥노가 유백로를 동정하는 마음에 하향현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정, 변용 2 : 사정을 안 유태종이 의논하자, 대접받는 옥졸이 조은하 일행이 전쟁이 발발한 곳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으로 설정, 변용 3 : 유태종이 꾸짖을 때, 유백로에게 자원출정을 명령하는 것으로 설정.
	3. 유백로는 가달을 치기위해 자원출전을 고하고, 병부상서 겸 정남대장군으로 임명되어 남경으로 향해감.	○
	4. 유백로가 서주를 지날 때 대로변 바위에 조은하를 만나는 축원문을 씀. 가달과 싸웠으나 최국낭의 방해로 식량이 떨어져 패배하고 가달에게 사로잡힘.	○
<b>VIII장</b> 조은하의 용력과 무술습득	1. 조은하는 고향 가는 길에 노인에게 환약을 먹고 병법, 무력, 용력을 얻음.	○ 누락 : 조은하가 장래를 점쳐달라는 요구하자 노인이 거절하는 장면. 변용 : VI장-5에 배치할 화소를 VIII-1 앞에 삽입
	2. 조은하는 한수에서 태양선생을 만나吉凶을 듣고, 그의 부인과 母女의 정을 나눔.	○ 누락 : 태양선생이란 등장인물명, 태양선생 부인과 조은하가 모녀의 정을 나누는 장면,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Ⅷ장 조은하의 용력과 무술습득		참가 : 길을 가는 노정 중 늙은 농부 를 음식을 얻는 장면 추가
	3. 조은하는 서주에 이르러 유백로가 쓴 비석을 보고 실성통곡하다 기절, 춘낭 등의 충고를 따 라 주막에 들름.	○
	4. 유상서 태 忠僕이었던 주막 주인이 유백로의 大敗 소식으로 통곡을 하자, 조은하는 시부모 께 편지를 전해주기로 청함.	○ 변용 : 주막주인의 아내가 통곡하 는 장면으로 바꾸고, 아내의 사정 설명으로 유백로의 패배가 최국 낭의 음모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 실을 알게 됨
	5. 주막주인은 유백로가 패전한 죄로 옥에 갇힌 상 서[유태종]부부를 만나 조은하의 편지를 전함	○ 누락 : 주막주인은 옥졸에게 뇌물을 주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6. 유상서는 진홍노에게 조은하를 상서 부중으로 데려오게 하고 보호하라고 명함.	○ 변용 : 유상서[유태종]의 심리기 술(자신의 마음을 감춘 아들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추가
	7. 조은하는 시부모의 소식을 듣고 유백로를 구하 려고 자원출전을 위한 表文을 올리고, 황제를 배알함.	○ 누락 : 태양선생의 예언 언급, 표 문에서 황제에게 요구사항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들.
조은하의 자원출전	8. 조은하는 황제의 兵法시험에 막힘이 없고, 御 劍으로 현란한 무술을 보여줌	○ 누락 : 병법시험)
	9. 황제가 조은하를 대도독 겸 대원수로 삼고 최 국낭을 파직하옥함	○ 누락 : 최국낭을 파직하옥함.

경판<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조은하의 자원출전	10. 조은하가 임금의 윤허를 얻어 시부모께 하직 인사하고 남복을하고 대장군이 되어 출정함	○ 누락 : 시부모께 하직인사
	11. 조은하가 제문을 지어 올리고, 충복에게 증상을 내려 비석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이끌어 위수에 도착함.	×
	12. 조은하는 위수에서 죽은 장졸들을 위로하기 위해 최국양의 庶子로 제를 지냄	○
가달과의 대결	13. 조은하는 陣中을 정비하고 敵陣을 정찰하여, 몽고와 和親한 가달이 대군이라 격파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짐.	× 축약 : 이 내용이 한 단락으로 마무리됨—조은하의 대군이 역적을 물리치고, 포로에게 정보를 얻어 유백로를 구출하여, 비로소 두 연인이 처음 만남. 유백로에게 지휘권이 주어지고 조은하는 사직하여 서울로 돌아와 백성들의 열렬한 칭송을 받음
	14. 가달을 꾸짖어도 듣지 않자 조은하는 백학선으로 물리치고 항복을 받음	
유백로와 조은하의 재회와 개선, 혼인	15. 조은하는 가달과 마대영을 사로잡고 유백로를 구해 개신 길에 오름.	○ 누락 : 조은하의 표문.
	16. 유백로는 不孝·不忠과 代가 끊기게 될 것을 걱정	
	17. 조은하가 백학선을 꺼내자, 서로를 확인하고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함	
	18. 조은하는 삼만 冤魂을 위해 慰靈祭를 지낸 뒤 부모 先塋에 성묘	
	19. 조은하는 대양 선생에게 은혜를 갚고, 창두 忠僕에게 상을 내림	○ 누락 : 금은 노비를 하사함 변용 : 유백로를 지방관으로
	20. 조은하의 표문을 본 황제는 최국양을 저자로 끌어내어 죽임	
	21. 황제는 유백로를 燕王에 조은하를 貞烈忠義王妃에 유상서는 太上王에 순씨를 肇國夫人으로 奉하고 금은 노비를 下賜함.	
	22. 황제는 친공주를 출가시키듯이 두 주인공의	

경관<백학선전> 24張本		알렌 영역본의 번역유무 (차이점)
알렌의 장 구분 (대단락)	소단락	
	혼사를 주관	축약 : 48면 자체에 대한 번역을 생략. 조은하가 향후 청송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서술로 마무리

알렌의 장 구분은 서구인 독자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다.<sup>30)</sup> 동시에 그가 내용을 분절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하다. 알렌은 고소설 속에 놓인 각설, 재설, 차설과 같은 표지가 아니라 유백로, 조은하란 두 주인공의 서술초점에 맞춰, 장을 구분했다.<sup>31)</sup> 이러한 장구분으로 말미암아 전우

30) 이 작품을 미리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서구인에게 더욱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한 부분, 즉 합리적인 개작의 모습과도 연관되는 측면이다. 이는 특히 제시했던 도표 속 VI-VII장의 변용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유백로 부친과 남장을 한 조은하가 우연히 만나 백학선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은하를 잡아가는 원본의 장면보다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獄卒을 대접하고 조은하 일행이 향후 여정을 말해 준 것이, 유백로 부친이 유백로에게 그들이 간 곳이 전쟁터란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은 알렌이 원본 고소설을 합리적으로 다시 재조직한 셈이다.

31) 이러한 장구분은 알렌의 의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도표에서 <I-2-변용2(첨가)>, <I-4-변용(첨가)>와 같은 대목들은 원본 이야기의 전개방식의 순서를 바꿔놓은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VIII장-1-첨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본래 VI장 말미 혹은 VII장 초두 사이에 배치될 순서에 해당되는 원본의 내용을 새로운 논평을 첨가하며, VIII장 초반에 배치시켰다는 점이다. “마침 청주로서 오는 사람이 잊거늘 낭지 우연이 그 사람을 댁하여 청주 순무어스의 소식을 탐문하즉 기인 왈 전 어스 뉴한님은 신병으로 스직 상소하여 갈녀가고 식로 황한님이 어스로 내려와다 헝거늘 낭지 듯고 다시 문 왈 그딕 엇지 즈시 아느뇨 기인 왈 우리는 청주 관인으로 뉴한님을 뵈서 보늬고 오는 길이라 하니 낭지 이 말을 듯고 방황하다가 바(<백학선전> 22-23쪽)”에 대하여 “Again fate had interfered to further separate the lovers, for, instead of continuing her journey[인용자 - 알렌의 논평], Uhn Hah had received news that induced her to start for Seoul. While resting, on one occasion, they had some conversation with pass-by, He was from the capital, and stated that he had gone there from a place near Uhn Hah’s childhood home as an attendant of the Usa[인용자 - 御使]Youn Pang Noo, who had sick at his uncle’s, the magistrate, and had gone to Seoul, where he was excused from Usa duty and offered service at court.(또 운명이 끼어들어 두 연인을

직녀 전설에 부응하여 두 연인의 재회하지 못하고 대면하게 되는 곤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또한 원본 3-4쪽 분량을 4-5쪽으로 번역한 I~IV장과 달리 V장 이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약했다. 물론 V장 이후의 축약은 알렌 영역본의 전반적인 번역양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sup>32)</sup> 하지만 군담적 요소에 대한 대폭 축약, 유백로와 조은하 부부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후일담)의 배제는 이러한 알렌의 장구분과 변별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남녀 주인공에 초점을 맞춘 장구분과 변용된 제명을 보면, 알렌이 한국의 사랑이야기로 자신의 저술에 배치한 작품이 <춘향전>이 아니라, <백학선전>이란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알렌은 *Korean Tales*에서 한국인의 사랑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한 부부 또는 방금 결혼하려는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품는 감정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사랑**

---

다시 갈라놓았다. 은하는 여행을 중지하고 서울로 가게 이끄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쉬는 동안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오는 길인데, 어사 유백로의 시중의 자격으로 은하의 어린 시절 고향 근처에서 서울로 갔었다고 했다. 그는 유백로가 지방관인 그의 삼촌 집에서 병이 들었다가 서울로 갔고 그곳에서 어사의 책무를 벗고 조정의 내직을 받았다고 했다.)라고 번역했다. 이 부분에 대한 원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조은하가 청주가 아니라 서울로 가게 되는 계기이다. 하지만 유백로는 황제가 권한 內職마저 하지 않고, 그의 집으로 낙향하게 된다. 그리고 조은하와 관련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자원출정을 결정하여 南京으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백학선전>을 이야기 순서에 따라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다. 유백로, 조은하 두사람을 이별시키는 운명에 관해 부연설명을 개입하며, 이 부분의 위치와 순서를 알렌은 변경했다. 이 점은 조은하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조은하의 여행길이란 공통점으로 화소를 함께 묶은 셈이다. 즉, 장구분의 표지는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표지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 32) 즉, V-VI장은 주인공 유백로의 심정(V장), 조은하가 꿈 속에서 만나는 열녀들과 관련된 중국고사(VI장) 등장인물 간의 대화(V-VI장)를 서술자 진술로 요약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분량이 축약된 것이다. 또한 VII장에 대한 축약은 VIII장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분량이다.

의 감정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것을 아시아인들은 수치로 알지는 않지만, 상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설령 그러한 사랑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126~127쪽)

<백학선전> 속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이러한 알렌의 진술에 <춘향전>보다 훨씬 부합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속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원본 고소설에 여실히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태종이, 조은하가 死地로 가게 된 상황에 대해 그의 아들 유백로를 꾸짖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번역양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VII-2)

네 엇지 이런 일(①)를 부끄지간의 이르지 아니호엿노 너도 병이 되엿거니와 그 녀진 경상이 엇지 가련치 아니호리오(누락) 너를 츠즈려 호여 싱스를 도라보지 아니호고 남경(누락)을 향호여 갈 거시니 이제 가달이 남경의 웅거호엿는지라(누락) 만일 그 녀진 그 곽절을 모르고 적혈의 드러갓시면 반다시 죽엿을 거시니 엇지 가련치 아니호리오 고언의 일너스되 일부합원의 오월비상이라 호여스니 우리 집의 엇지 되혜 업스리오(②)...티슈 위로 왈 닌 헤아리건디 그 녀진 절형이 거록호미 반다시 하늘이 무심치 아니헐 거시니 너는 모로미 심녀치 말나 호거늘 스되 왈 녀진 나를 위호여 절형이 여츠호니 닌 엇지 죽기로 힘써 찾지 아니호리오 (③)호고 마음을 정호니라(25쪽)

“What have you done? You secretly pledge yourself to this noble girl, and then, by your foolish silence, twice allow her to escape, while you came near being the cause of her death at the very hands of your father (첨가①) ; and even now by your foolishness she is journeying to certain death. Oh, my son! we have not seen the last of this rash conduct; this noble woman’s blood will be upon our hands, and you will bring your

poor father to ruin and shame. UP! Stop your lovesick idling, and do something. Ask His Majesty, with my consent, for military duty ; go to the seat of war, and there find your wife or your honor.”<sup>33)</sup>

“첨가①”은 원본의 “이런 일”(①)을 자세하게 풀어쓴 것이지만, 해당 내용을 원본 고소설 역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축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흥미로운 변용 부분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一婦含怨 五月飛霜)는 속담을 들어 집 안에 화가 미칠 것이라는 원본의 내용(②)을,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변개한 부분이다. 원본에는 부친 유태종이 유백로를 책망한 후 위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③)되고 주인공 유백로가 자원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알렌은 부친의 명예에 따라 유백로가 출정하는 것으로 변용했다. ②, ③에 대한 변용의 모습은 서구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생략한 것이며 더불어 유태종을 원본보다 미화하려는 알렌의 일관적인 번역(I 장, VI-3)양상이 반영된 것이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알렌이 변개한 <백학선전>의 내용들은 I 장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유태종의 인물소개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유태종의 말은 알렌이 개입한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③에 대한 변용은 옥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춘 아들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VIII-6)과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부모에게 사랑의 전말을 말한 조은하와 달리 먼저 마음을 고백하고도 그렇지 못한 유백로의 모습이 사건의 원흉이라는 알렌의 해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33)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런 고귀한 남자와 남몰래 약혼했으면서도, 바보 같이 말을 얹고, 두 번씩이나 그녀를 놓치다니, 너로 인하여 니 애비 손에 그녀가 죽을 뻔했다. 이제 너의 어리석음으로 그녀를 死地로 보냈구나. 아, 나의 아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행실은 본 적이 없다. 그 고귀한 여성이 우리로 인해 죽게 되면, 너는 불쌍한 니 애비를 파멸과 수치로 몰아넣을 것이다. 일어나라! 상사병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를 해라! 내가 허락한 바대로 임금을 배알하여 장수의 의무를 다하도록 청하고, 전쟁터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부인과 너의 명예를 찾아라.” p. 78.

그것은 한국인 남성의 전형적인 사랑의 양상이기도 했던 셈이다.

③ 마지막으로 양반 사대부의 가정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유태종에 대한 서술을 확장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렌의 <백학선전>영역본에는 유백로의 과거급제 이전의 내용(Ⅰ-Ⅳ장)이 상대적으로 축약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양반들의 부부생활, 혼속, 가정교육과 같은 가정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다. 알렌은 *Korean Tales* Ⅱ장에서 “길가에서” 한국의 “가정생활을 알 수 없”으며, “귀족들의 훌륭한 벽에 이르는 대문을 통과할 수 있고, 수 많은 안 뜰을 지나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이도 그들의 가정생활을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들만의 공간에만 있어 볼 수가 없고, 서구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성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이었다.(p.20) 이는 양반들의 가정생활을 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1. 화설 디명 시절의 남경 썩히(누락) 일위명환이 이스되 성은  
뉴요 명은 틱종이오 별호는 문성이니 오디충신 즈손으로 공후작  
의 디디로 쓴치지 아니하고(누락) 뉴공의 위인이 인후공검흔지라

2. 일즉 용문의 올노 천총이 능성히여 벼슬이 니부상서의 이르되  
다만 슬하의 즈식이 업스민 일노 인히여(누락) 청운을 하직하고  
향의 도라와 밧갈기와 고기낙기를 일술더니(②)

3. 일일은 갈건도복으로 죽장을 집고 (누락)명산풍경을 심방히려  
한가히 나아가니 츠시는 춘삼월 호시절이라 빙화는 만발하고 양뉴  
는 청스를 드리온 듯 두견은 슬피 울고 슈성은 잔잔히민 즈연 스람  
의 심회를 돕는지라

4. 즉시 집으로 도라와 부인 진시를 디히여 탄식 왈

“우리 적악한 일이 업스되(①) 흔낫 즈식이 업서 조선향화를 쓴  
케 되니 무슴 면목으로 디하의 도라가 조상을 뵈오리오 유명지간의  
죄를 먼치 못헐지라……(1쪽)

“1. You TAH JUNG was a very wise official, and a remarkably good man. 2. He could ill endure the corrupt practices of many of his associate officials, and becoming dissatisfied with life at court, he sought and obtained permission to(변용) retire from official life and go to the country.” His marriage had fortunately been a happy one, hence he was the more content with the somewhat solitary life he now began to lead. His Wife was peculiarly gifted, and they were in perfect sympathy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longed not for the society of others.(첨가1) They had one desire, however, what was ever before them and that could not be laid aside. They had no children ; not even a daughter had been granted them.

As You Tah Jung superintended the cultivation of his estate(첨가2), he felt that he would be wholly happy and content were it not for the lack of offspring. 3. He gave himself up to the fascination pastime of fishing, and took great delight in spending the most of his time in the fields listening to the birds and absorbing wisdom, with peace and contentment from nature.(첨가3) As spring brought the matting and budding season, however, he again got to brooding over his unfortunate condition.

4. For as he was the last of an illustrious family, the line seemed like to(p.58) cease with his childless life. He knew of the displeasure his ancestors would experience, and that he would be unable to face them in paradise ; while he would leave no one to bow before his grave and make offerings to his spirit. Again he bemoaned their condition with his poor wife, who begged him to avail himself of his prerogative and remove their reproach by marrying another wife. This he stoutly refused to do, as he would not risk running his now pleasant home by bringing another wife and the usual discord into it.(첨가4-도치)<sup>34)</sup>

---

34) “1. 유태종은 아주 현명한 관리였고,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2. 그는 많은 동료



원본에서는 “우리 적악한 일이 업스되”(①)로 간략히 제시되는 부부관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첨가1) “고향의 도라와 밭갈기와 고기낙기를 일습더니”(②)와 달리 유태종이 그의 토지경작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첨가2) 이곳에는 오히려 알렌이 본 양반들의 삶에 근거한 변용이 이루어진 셈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모습(첨가3) 그리고 無子恨歎과 관련하여 유태종의 고민이 그의 맘속의 언어로 제시되어, 서구인이 양반 덕 남성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셈이다. 또한 비록 조은하 부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앞으로 옮긴 것이지만, 축첩이 관행적으로 수용되던 당시의 모습, 아이를 얻지 못하는 부인이 남편에게 축첩을 권하는 대목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유태종의 모습(첨가4)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알렌은 “화설 티명 시절의 남경 ㅅ히”(1쪽)로 규정된 <백학선전>의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하여 서울(Seoul)을 제외한 南京, 서남 땅 등의 지명에 대한 번역을 생략했다. 그 이유는 이야기의 배경을 중국이 아닌 당시

---

관리들의 부패 행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공직생활에 실망을 하게 된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 허가를 받았다. 그의 결혼은 다행히도 행복했고, 따라서 그는 그에게 시작될 다소 단조로운 생활에 보다 만족할 수 있었다. 그의 아내는 매우 타고난 사람이었고, 그들은 서로 서로를 깊이 공감했었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 심지어는 딸조차도 그들은 선물 받지 못했다. / 유태종은 그의 농토를 관리하면서, 자식이 없는 문제만 없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3. 그는 매력적인 취미생활로 낚시에 몰두했고,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서 새들의 소리를 듣고 즐겼고, 평화롭고 평온히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그러나 만물이 짝을 맺고 아름다운 짝이 트는 계절인 봄이 되자, 그는 또 다시 그의 불행한 상황에 피가 끓어올랐다. 4. 왜냐하면 그는 명망가의 獨子로, 그의 자식 없는 삶으로 대가 끊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주고 그의 무덤 앞에 절을 할 이를 남기지 못할 경우에, 그의 조상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자, 그가 천국에 가서 그들을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알고 있었다. 또 그는 불쌍한 부인과 그들의 처지에 한탄했다. 부인은 그가 특권을 활용하여 또 다른 부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면하자고 간청했다. 그는 완강하게 이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는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함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불화를 일으켜, 지금의 화목한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p. 59.

한국으로 선정하려고 한 측면과 긴밀히 관련된다. 사실 쿠랑의 『한국서지』를 보면 <백학선전>은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국문소설로 분류된다.<sup>35)</sup> 그렇지만 알렌은 이 소설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그가 『한국의 설화 *Korean Tales*』 I-II장에서 제시한 한국, 서울이라는 시공간으로 제한하고 한국인의 삶이라고 읽었음을 의미한다. 그 지향점이 잘 반영된 부분은 <백학선전>마지막 대목에서 論功行賞이 돌아가는 장면에 대한 변용이다. <백학선전> 원본에서 유백로는 연왕으로 그의 부친은 태상왕으로 봉해진다.(47쪽)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소설적 시공간이 중국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영역본에서는 유백로는 지방관으로 부친은 본래 직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번역된다.<sup>36)</sup> 알렌이 한국인의 생활을 잘 보여주기 위해 첨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그것은 원본에는 없는 남장을 한 조은하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첨가한 부분이다.

The idea seemed a good one, and it was adopted. They allowed **their hair to fall down the back in a long braid, after the fashion of the unmarried men**, and, putting on men's clothes, they had no trouble in passing unnoticed along the road(p. 74).

알렌이 묘사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의 모습은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었다. “소년이 약혼하게 되면 더 이상 처녀들처럼 등 뒤에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 외국인으로서 미혼 남녀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힘들다.”<sup>37)</sup>란 진술이 보인다. 이는 상

35) 양반들의 가정생활에 주목하고, 중국이란 소설적 시공간을 한국으로 변형한 모습은 알렌의 <심청전>영역본에도 동일하다.(이상현, 「문혀진 <심청전>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36) You Pang Noo was appointed governor of a province, and the father was reinstated in office, …(p. 87)

37) H. N. Allen, 신복룡 역, 『조선견문기』, 집문당, 1998, 127쪽(*Things Korean -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1908).

기 알렌의 묘사와 사실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알렌이 남장한 조은하를 통해 땡기머리를 한 소년의 형상을 발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알렌의 영역본은 일종의 문화의 번역이었으며, 알렌은 반-미개인 (semi-savage people)이라고 잘못 인식되던 당시의 한국(인)을 변호하려는 고 했다. 알렌의 서문이 잘 말해주듯, 개항이후 한국을 지나가는 외국인들의 단편적인 소감에 편하되는 한국의 형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알렌은 구 전물이란 지평에서 고소설을 번역했으며, 그가 체험했던 한국문화의 지 평에서 변개를 수행했다. 이러한 알렌의 번역물들은 적어도 동시기 쿠랑 의 번역지평에는 부합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서구 독자의 취향과 시장을 염두에 둔 홍종우, 로니의 불역본과 달리, 알렌의 텍스트 변용과 그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진실하며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서구에 알리는 것 에 있었기 때문이다.

- 『백학선전白鶴扇傳』, 京城 : 白斗鏞, 192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Allen, H. N. *Korean Tales-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New York & London: The Nickerbocker Press., 1889.
- \_\_\_\_\_, *Korea, Fact and Fancy : Being a Republication of Two books Entitled "Korean tales" and "A chronological index"*,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 구자균, 「Korea Fact and Fancy의 書評」, 『亞細亞研究』 6-2, 1963.
- 권순궁, 한재표, 이상현, 『『계일문서』 소재 <심청전>, <토생전>의 발굴과 의의』,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 김광식, 「우스다 잔운(薄田斬雲)과 한국설화집 「조선총화」에 대한 연구」,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 김영남, 『동일성 상상의 계보-근대 일본의 설화연구에 나타난 ‘민족’의 발견』, 제이앤씨, 2006.
- 김윤식, 「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에 대하여, 『한국학보』 7-2, 일지사, 1981.
- \_\_\_\_\_, 「춘향전의 프랑스어 번역」,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 김진영, 「<백학선전>의 소재적 특성과 이합구조」, 『국어국문학』 120, 국어국문학회, 1997.
- 사재구, 전상욱, 「춘향전 이본 연구에 대한 반성적 고찰」, 설성경 편,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4
- 서정민 편역, 『한국과 언더우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오운선, 『한국고소설 영역본으로의 초대』, 집문당, 2008.
- 이문성, 「판소리계 소설의 해외영문번역 현황과 전망」, 『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 이상현, 「문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

- 설학회, 2011.
- \_\_\_\_\_, 「언더우드의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동방학지』 15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 이창헌,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조희웅, 「韓國說話學史起稿—西歐語 資料(第Ⅰ·Ⅱ期)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 국학연구소, 1986.
- 허 석, 「근대 한국 이주 일본인들의 한국문학 번역과 유교적 지(知)의 변용」, 최박광 편, 『동아시아의 문화표상』, 박이정, 2007.
- 홍종우, 김경란 역, 「다시 꽃이 핀 마른 나무」, 『한국학보』 7-2, 일지사, 1981.
- 홍종우·로니, 김경란 역, 「향기로운 봄」,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 Allen, H. N., 신복룡 역주, 『조선 견문기』, 집문당, 1999, (*Things Korea—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 Arnous, H. G., 송재용·추태화 역, 『조선의 설화와 전설』, 제이앤씨, 2007 (*Korea. Märchen und Legenden*, Leipzig, Verlag von Wilhelm Friedrich, 1893)
- Boulesteix, F., 이향, 김정연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풀빛, 2002.
- Courant, M.(李姬載 역), 『韓國書誌-修訂翻譯版』, 一潮閣, 1997, (*Bibliographie Coréénene*, 3tomes, 1894-1896, 1901, Supplément, 1901)
- Griffis, W. E.,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1999, (*Corea, the Hermit Nation*, London: W. H. Allen & Co, 1882)
- Hulbert, H. B.,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2006,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mpany, 1906).
- Ross, J. 홍경숙 역, 『존 로스의 한국사-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 역사』, 살림, 2010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Paisley, 1879)
- Aston, W. G., “On Corean popular literature”,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XVIII, 1890.
- Underwood, H. H. “A Partial Bibliography of Occidental Literature 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Seoul : Korea, 1931.
- Underwood, H. G. “Introductory remarks on the study of Korean”, 『韓英文法』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Seishi Bunsha, Kelly & Walsh, 1890 (김민수, 하동호, 고영근 편, 『歷代韓國文法大系』 제2부 제3책, 塔出版社, 1979).
- Par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한불즉언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evy Imprimeur-Libraire, 1880.

〈ABSTRACT〉

A Study on English Version  
of Baekhaksun-jeun(白鶴扇傳) by Allen

Sang Hyun Lee  
(Pusan University)

In this study, it is defined that Allen's "Ching Yuh and Kyain Oo" which was known as the 'Tales of Gyun-woo and Jing-nyuh' is the work which *Baekhaksun-jeun*(白鶴扇傳) was translated from Korean into English. This work is not faithful literal translation of vocabulary or sentences in comparison with original text, *Baekhaksun-jeun of Seoul Block Printed*. However, the story development has some faithful translation aspects. Gyengpan *Baekhaksun-jeun* which was examined by Maurice Courant was apparently the translation work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re was no dictionary and grammatical books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the English version by Allen satisfies in showing the custom and life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e tales.

**Key words** : Allen, "Ching Yuh and Kyain Oo", *Korean Tales*(1889),  
*Baekhaksun-jeun*(白鶴扇傳), folklore, horizon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culture, ethnography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
---